



가 있는데 손으로 만지니 곧 부서지는데 白色가루가 되어 바람에 모두 날라 없어졌다 고 한다. 이로써 大豆만한 一個의 物體는 銅盒에 安置되었든 舍利인 듯 하고 火葬된 遺骨은 石函内部에 舍利를 裝置한 銅盒과 함께 安置하여 埋藏한 듯하다. 線刻으로 된 四天王像이나 뚜껑에 線刻된 寶相華紋은 新羅統一以後의 것으로 짐작된다.

實測值……總高(꼭지까지) 七·三cm 盒高(뚜껑까지) 五·三cm 뚜껑高 一cm 下面 七·三cm × 六cm

2, 靑銅製鑄造矩形盒의 盒上緣은 뚜껑을 받는 印籠이 있어 뚜껑을 닫으면 꼭 맞게 하였고 盒外面에 四天王像을 一軀씩 線刻하여 長軸을 南北으로 둔 配置이다. 뚜껑은 上面이 二段으로 되고 中央에 寶珠形鈕를 붙이고 이를 中心하여 方形對角에 花葉中心을 두고 그 사이에 또 一葉씩을 둔 線刻으로 寶相華紋을 二段으로 配置하였다.

發見者의 말에 依하면 最初 銅盒內에 大豆만한 둥근 物體

醴泉 靑龍寺의 塔像

鄭 永 鎬

一、三層石塔

慶北醴泉郡龍門面仙洞에 자리잡은靑龍寺는 近年에 이루어진 寺刹이나 이곳에는 法堂內의 石佛 二軀를 비롯 前庭에 石塔 一基等 貴重한 遺物이 保存되어있다. 石塔은 三層으로서 倒壞되었던 것을 再健한 듯 한데 基壇部는 上甲石만 보일 뿐 그 以下는 埋沒되어 있다. 四枚石으로 된 甲石上面에는 二段의 얇은 괴임을 彫刻하여 塔身을 받고 있는데 初層塔身에는 門扉가 陰刻되었으며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어 있다. 各屋蓋의 받침은 四段씩이고 落水面이 平薄하며 上面에는 괴임層段이 없다. 屋蓋石이나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現高 一六〇

塔身高	幅	隅柱幅	屋蓋長	厚
一層 四四·五	五五	九	八四	二六
二層 一八	四六·八	九	七五	二〇
三層 一四·五	三八	五·五	六四	一九

二、石造如來坐像

光背와 臺座를 具存한 바 現在 光背는 別置하였다.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서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다. 兩眉眼이나 鼻部 口唇等이 整齊되어 圓滿한 相好인데 兩耳朶에 若干의 破損이 있음은 遺憾된 일이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袈裟의 結帶가 보이는데 그 流麗한 手法이 注目된다. 手印은 降魔觸地印이고 後面에는 光背를 附着시켰던 圓孔이 있다. 臺座는 上, 中, 下臺로 構成되었는데 下臺石은 밑에 八角側面에 各眼象 一區씩(그안에 花文이 陽刻되어 있음)



을彫刻한 一石을 놓고 그위 八瓣의 伏蓮臺石을 놓았는데 上面에는 大小 여러 層의 괴임을 刻出하고 그위 中臺石을 받고 있다. 竿柱는 八角인데 모두 隅柱가 表現되어 있고 各面에는 蓮花上의 如來像과 菩薩像이 陽刻

되었다. 上臺石은 下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이 있으며 仰蓮도 瓣內를 花文으로 彫飾하였다. 光背는 寺刹에서 法堂內의 佛像 二軀中 어느 편에 附着되었던 것인지를 判別할 수 없어 現在 兩軀中間에 걸쳐 놓고 있는데 이것은 筆者가 調査한 바 그 手法이나 實測值로 보아 如來像의 光背로 確證할 수 있었다. 早速히 本然대로 附着시켰으면 좋겠다. 光背는 舟形으로서 頭身光을 表現했는데 周緣에는 雄麗한 火焰文이 있으며 頭光周邊에는 八瓣의 單蓮(瓣內)에 彫飾이 있는데 돌려 있고 外輪과의 間地에는 寶相華文이 彫刻되어 있다. 頭光에서 二條線을 내려 身光을 區別했는데 그곳에도 寶相華文으로 彫飾했다. 坐像의 端雅함과 流麗한 衣文 豐滿한 蓮瓣等 各部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羅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 (cm) 像高九三·五 肩幅四六 頭高三二 胸幅三二·五 膝高一八·五 幅七四 光背가 附着되었던 柅穴徑三·八 深六·二 下部에서 四七·五 上臺石 徑九一 厚二〇 中臺石 一邊長二一·八 高二四·三 下臺石(下) 一邊長四三·五 高三 眼象 高一 幅三二 下臺石(上) 一邊長三八 厚二·五 光背高一五〇 上幅八五 下幅七三·五 廣幅一〇八 厚二二·五

三、石造毘盧舍那佛

臺座만을 具存했으나 坐像의 後面에 光背附着의 柅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光背는 缺失된 것이다. 螺髮의 頭頂에는 넓직한 肉髻가 있고 兩

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相好는 豐滿한데 鼻樑과 口唇等에 若干의 磨損이 있고 右便耳部가 缺損되어 遺憾스럽다. 한편 圓滿한 相好에 鼻部와 口唇이 바르게 彫刻되어 異例的이라 할 것이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衣文은 兩腕을 걸쳐 流麗하게 흘러 무릎을 덮고 있으며 背後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다. 臺座는 方形으로 上、中、下臺로 이루어졌는데 上臺石은 下面에 一段의 角形과 一段의 물덩이로 받침을 삼고 있으며 四面 三瓣씩의 仰蓮은 單瓣으로, 內部에 花紋의 彫飾이 있다. 竿柱의 各面에는 큼직한 眼象이 一區씩 있는데 下部內에 귀꽃模樣의 三山形花文이 있다. 下臺石은 前面이 破損되었으며 側面에 眼象 二區가 配置되었는데 여기에도 三山形花文이 있다. 上面은 平扁한 扁 괴임 등의 刻出은 全無하다. 相好나 衣文의 手法 臺座 蓮瓣等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되며 優作에 屬한다 할 것이다. 實測值는……(cm)

像高一 一 肩幅五 膝幅八九 頭高三三·五 胸幅三六 高三 上臺厚三四 前面長一〇二 側面長九二 中臺高三七·二 前面長四八·五 側面長四五·一 下臺高二五·五 前面長九八·五 側面長八六·五

現在 境內에는 많은 礎石이 散在해 있는 바 前述한 石佛 兩軀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보이는데 이 때에는 現在의 建物들이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同行하여 많이 協助해 준 同人 鄭明鎬氏와 現地에서 案内 등 많은 도움을 주신 醴泉郡 教育課 長 金正植先生께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分院出土「御厨」銘白磁盃斷片

鄭 良 謨

今月初旬 廣州 牛川の 右邊 窯蹟을 調査하여 樊川에서 分院에 이르렀다.